

## 인문 09 (★★★)

## 도덕 상대주의

## &lt;1문단&gt; 상대주의

상대주의자는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문화에 대해 참인 주장이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거짓일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 상대주의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참이라는 것은 언제나 개인 또는 문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참이라는 것이다.

→ 앞서 언급한 상대주의에 대해 재진술 해 주었습니다. A라는 주장이 참이라는 것은 개인 or 문화에 따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말은...

그들(=상대주의자)에 따르면 어떤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 같은 것은 없다.

→ 개인 또는 문화에 상관 없이 항상 성립하는 절대적인 진리 같은건 없다는 거죠.

## &lt;2문단&gt; 따분한 상대주의와 흥미로운 상대주의

상대주의는 상당한 논쟁거리를 제공하는 흥미로운 주장이지만, 따분한 상대주의와 헷갈리지 말아야 한다.

→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면 뭐 논쟁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항상 옳을 거니까. 근데 상대주의가 가능하다면, 여기서는 옳고, 저기서는 그른 무언가가 존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논쟁이 가능해 지는 거죠. 근데, 따분한 상대주의와 상대주의를 헷갈리면 안된답니다. 그렇다면, 따분한 상대주의는 뭘까요?

나와 친구가 모두 "나는 떡볶이를 좋아해."라고 말했다고 할 때, 같은 문장을 말했지만 '나'가 누구를 가리키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 똑 같은 문장, '나는 떡볶이를 좋아해' 지만, 서로 내포하는 주장은 다릅니다.

중2병 느낌으로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코난은 떡볶이를 좋아해”

“설현이는 떡볶이를 좋아해”

서로 다른 주장이지요?

내가 말한 문장은 참이고 친구가 말한 문장은 거짓일 수 있기에 상대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한 것이므로 관심을 가질 만한 **흥미로운 상대주의**는 아니다(=따분한 상대주의이다).

→ 분명히 코난이 말한 ‘나는 떡볶이를 좋아해’는 참이고, 설현이 이야기한 ‘나는 떡볶이를 좋아해’는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주의(=어떤 사람 or 문화에 대해 참인 주장이 다른 사람 or 문화에 대해서는 거짓일 수 있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직전 문장을 통해 진술했듯, ‘나는 떡볶이를 좋아해’는 서로 다른 주장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주장은 원래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주장에 관한 상대주의는 따분한 상대주의(~흥미로운 상대주의)라는 겁니다.

**흥미로운 상대주의**는 같은 주장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문화에 대해서는 참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문화에 대해서는 거짓일 수 있다는 관점이다.

→ ‘**흥미로운**’ 상대주의는 다른 주장이 아니라, 같은 주장에 대해 상대주의가 성립한다는 관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흥미로운 의미에서의 상대적인 진리**들은 서로 양립할 수 없다.

→ 이 문장은 사실 좀 머리가 아픕니다. 이 문장을 현재 상태 그대로 이해한다면, “(따분한 상대주의는 양립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의미에서의 상대적인 진리**는 양쪽에서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로 읽히거든요.

이 해석이 왜 머리를 아프게 하냐면... 바로 **흥미로운 상대주의의 정의** 때문입니다. 다시 직전문장에서 나온 **흥미로운 상대주의의 정의**를 살펴볼까요? “~에 대해 참일 수 있지만 ~에 대해서는 거짓일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정의에 비추어, 같은 주장이 항상 양쪽에서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게(=양립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주체가 둘 있다고 했을 때, 결과값이 총 4가지 조합이 가능하단 겁니다.

(참, 참), (참, 거짓), (거짓, 참), (거짓, 거짓) 으로요.

본문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 볼까요? 단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다. 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진술은 (참, 참), (거짓, 거짓)의 가능성을 배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다시 말해서 흥미로운 의미에서의 상대적인 진리들은 항상 양립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진술 했어야 적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이 문장을 본 학생들이,

“따분한 상대주의는 항상 양립 할 수 있는데(다른 주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흥미로운 상대주의는 항상 서로 양립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같은 주장이 다른 개인, 문화에서 항상 참, 항상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어쨌든, 이제 상대주의가 후술되더라도, 따분한 상대주의가 아닌, 흥미로운 상대주의를 전제하고 이야기가 진행 될 것입니다. 따분한 상대주의는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기 때문이죠.

### <3문단> 프로타고라스의 상대주의에 대한 플라톤의 반박

상대주의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의 프로타고라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선언했는데, 이(=인간은 만물의 척도)는 개개인의 견해가 모두 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상대주의의 역사 시작이 프로타고라스인데, 이 분은 ‘개개인의 견해가 모두 참이다(=절대적인 무언가는 없다)’라고 주장했답니다.

플라톤은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주장(=프로타고라스의 주장)에 대해,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주장이 절대적으로 참이라면(=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이 맞다면) 자기 반박이 된다고 강력한 반론을 제시했다.

→ 플라톤이 튀어나오네요. ‘프로타고라스 니 주장이 참이잖아? 그럼 모순이야’라고 반론을 제시했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계속 살펴 보시지요.

프로타고라스 같은 상대주의자들은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진리 자체도 단지 상대적이라고 주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 프로타고라스는 선언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이 선언에는,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다’는 절대적으로

참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플라톤은 자기 반박이 됨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프로타고라스야,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라며? 근데 모든 진리가 상대적인데 어떻게 니가 진술한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절대적으로 참이 되냐?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라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다’ 라는 명제 역시 하나의 진리인 이상 누군가는 옳다고 생각할 수도, 누구는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거잖아? 말이 안되네?ㅎㅎ”

이제 상대주의자는 플라톤의 이 주장에 대해 반박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상대주의는 설 곳을 잃어버리게 되요.

#### <4문단> 도덕 상대주의

상대주의자가 이 반론을 피해 갈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진리가 상대적인 것은 아니고 어떤 진리는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플라톤아, 사실 모든 진리가 상대적인 것은 아니고, 내가 말한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야”는 절대적 참이고, 나머지 진리들은 상대적인거야~~” 식으로 주장하면 반론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상대주의의 종류는 ‘도덕 상대주의’이다.

→ 이제 도덕 상대주의에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덕 상대주의가 뭘까요?

이것(=도덕 상대주의)은 서로 다른 문화에는 서로 다른 도덕률이 존재한다는 전제로부터, 도덕성에는 객관적인 진리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이론이다.

→ 도덕 상대주의의 전제 : 서로 다른 문화에는 서로 다른 도덕률이 존재

결론 : 도덕성에는 객관적인 진리가 없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옳고 그름은 관점의 문제일 뿐이며 그러한 관점은 문화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 도덕성에 객관적 진리가 없으니, 옳고 그름(=도덕성)은 문화마다 다르답니다.

이러한 주장(=옳고 그름은 관점의 문제인데, 그 관점은 문화마다 다르다는 주

장)을 하는 **도덕 상대주의자**는 열린 마음, 평등, 자유의 수호자로 자처하기도 하고,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신들만의 고유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오만한 사람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서로 다른 문화니까, 여기서 틀린 게 저기서는 옳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타 문화의 어떤 현상에 대한 도덕성에 대해 평가할 순 없어. 저 문화는 저래서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너는 니가 믿고있는 진리를 타 문화에,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오만한 사람이구나!”

**도덕 상대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문화적 제국주의를 찬성하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며, 더 나아가 인종 차별주의와 동일시되기도 한다.**

→ **도덕 상대주의자의 입장에서 본인의 입장에 반대하면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 <5문단> 도덕 상대주의의 전제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비판

그러나 **도덕 상대주의자**가 내세운 전제는 결론을 지지해 주지 못한다.

→ **도덕 상대주의자의 전제가 뭐였고 결론이 뭐였죠?**

**전제 : 서로 다른 문화에는 서로 다른 도덕률이 존재**

**결론 : 도덕성에는 객관적인 진리가 없다.**

**이 전제가 참이라고 가정해도 결론이 도출되지 못한다는 애긴데요. 계속 살펴봅시다.**

이 논증의 전제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와 관련된 것으로, 어떤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믿는 바는 다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이 믿는 바와 다르다는 것이다.

→ **서로 다른 문화권에 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은, 문화권에 따라 믿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어떤 문화권에서는 “신은 존재해” 라고 믿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신은 존재하지 않아”라고 믿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결론은 ‘**실제로는 어떠한가**’와 관련되어 있다.

→ **결론은, ‘**믿느냐**’ 와 관련이 없고 ‘실제로는 어떠한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바와 관련된 전제에서는 실제와 관련된 결론은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없다.

→ 그러니까, 내가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는 점이 현실에서 신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논리적으로' 도출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 즉, 내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점 역시 현실에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논리적으로' 도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뭐라고 믿든, 현실(=실제)은 이미 정해져 있을테니까요.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에서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또 다른 사회에서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다고 해서 지구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된다.

→ 누군가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누군가는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다고 해봅시다. (실제로 지구가 둥글다는 fact는 차치하고) 둘 모두의 전제가 믿음에 관련된 영역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 준다고 하고, 이 전제들을 통해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하지 않게)'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면 그 결과값은 '지구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없어 그러니까 둘 다 틀린거 아님 ㅎㅎ' 이 될겁니다.

근데 지구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은 존재하잖아요(그게 둥글든, 평평하든, 어떤 확정된 모양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 대한 객관적 사실은 존재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바'에 관련된 전제, 다시 말해 상대성을 인정하는 전제로부터 '현실의 이야기인, 실제하는' 결론을 논리적으로 도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6문단> 도덕 상대주의의 결론 비판

전제에서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론을 지지하는 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지 결론이 틀렸다는 주장은 아니다.

→ 직전 문단에서 읽었던 것은, 전제가 결론을 뒷받침 해주지 못 한다 였습니다.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이 항상 틀린 것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도덕 상대주의의 결론에 오류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 이 문장을 통해, 필자가 도덕 상대주의를 비판하고 싶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도덕 상대주의를 비판하려면, 전제의 결론 유도 불가능성 뿐만

이 아니라 결론 그 자체가 오류가 있으므로 도덕 상대주의가 틀렸다! 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덕성에는 객관적인 진리가 없다는 도덕 상대주의의 결론은 옳고 그름의 척도란 없으며 각 사회의 기준만 있다는 주장이다.

→ 5문단에서 도덕 상대주의의 결론이 도덕성에는 객관적인 진리가 없다고 했었지요? 여기서 도덕 상대주의의 결론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해 주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 결론 자체에 대해 비판할 모양입니다.

이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동의하기 힘든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도덕 상대주의의 오류를 드러낼 수 있다.

→ 도덕 상대주의의 결론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동의하기 힘든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도덕 상대주의의 결론에 오류가 있음을 드러낸답니다. 앞으로 이 논지로 글을 끌고 나갈 겁니다.

첫째, 이제 더 이상 다른 사회의 관습이 우리 사회의 관습보다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

→ 도덕 상대주의의 결론을 받아들이면, 어떤 사회의 관습이 우리 사회의 관습보다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이야기 못 한답니다.

도덕 상대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노예제나 나치의 집단 학살이 옳지 않다고 생각할 것이다.

→ 도덕 상대주의자든, 아니든, 사람들은 노예제, 나치의 집단 학살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 할 것이라는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덕 상대주의의 주장에 따르면 이 예들이 열등한 것이라고 이야기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를 끌고 들어온 것이겠죠?

그러나 도덕 상대주의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관습이나 역사적 사실에 대해 비난의 여지가 없다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 네. 그러니까 위의 예(노예제, 나치의 집단 학살)가 '어떤 사회의 관습이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말할 수 없게 된다'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가 된 것이겠죠.

둘째, 어떤 행위가 옳은지 그른지는 그 사회의 기준만을 참조해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 도덕 상대주의를 받아들이면, 객관적 진리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때는 각 사회의 상대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1975년에 남아프리카의 어떤 주민이 인종 분리 정책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지 판단할 때 자신이 속한 사회의 도덕률에 부합하는지 질문해서, 만약 부합한다면 이 정책은 적어도 도덕적 관점에서는 전혀 고민거리가 아니게 된다.

→ 이 문장은, “결국 우리가 동의하기 힘든 결론에 이른 상황”입니다. 우리는 ‘인종 분리 정책’에 대해, “응 그 당시 사회의, 그 나라의 상황이 있으니까 도덕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지 못해!”라고 얘기하진 않으니까요.

셋째, 도덕적 진보라는 개념이 의문시되고 만다.

→ 각 사회의 기준만 있어 그걸로 옳고 그름을 따진다면, 도덕적 ‘진보’ 라는 말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적 변화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간다고 생각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예로 들어 생각해 보면 된다.

→ ‘더 낫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 판단이 전제 되어야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 되었다고 얘기한다면, 과거 여성에게 참정권이 없었던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도덕적으로 옳바르지 못한 상황)으로, 현대의 참정권이 있는 상황은 긍정적인 상황(=도덕적으로 옳바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덕 상대주의가 옳다면 다른 시대의 기준으로 이전 시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시대 간의 판단은 불가능하다(=진보라는 개념이 의문시 된다).

→ 도덕 상대주의에 따르면 각 시대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 현 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과거 시대의 현상에 대해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현대의 시각으로 과거 여성이 참정권을 가지지 못했던 상황을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 경우, 부정적 상황 -> 긍정적 상황으로 변화하는 과정인 ‘진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7문단> 도덕 상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

도덕 상대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문화 상대주의'를 오해한 것이다.

→ 사람들이 도덕 상대주의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문화 상대주의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화 상대주의는 뭘까요...

문화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분석해 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 앞으로는, '그렇게 다르지 않은' 문화 간 차이에 대해 이야기 해 주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소고기를 먹는 것이 나쁘다고 믿는 문화(=A)는 윤희를 믿어 그 소가 자신의 할머니일 수도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 보자.

→ 이 문화(=A)권에 속한 사람의 사고 과정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이 소가 내 할머니일 수도 있어"(전제) -> "소고기를 먹는 것은 나빠!"(결론)

이 문화와 소고기를 먹는 것이 나쁘다고 믿지 않는 문화(=B)의 도덕률이 서로 다르다고 말해야 할까?

→ 서로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이 질문을 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소고기를 먹는 것이 나쁘다고 믿지 않는 문화도 할머니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므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그 소가 할머니일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일 뿐이다.

→ 이렇게 정리 해 볼 수 있겠네요

A 문화 :

할머니를 먹는 것은 나빠(전제) → 이 소가 내 할머니일 수도 있어(전제)

→ 그러므로 소고기를 먹는 것은 나빠(결론)

B 문화 :

할머니를 먹는 것은 나빠(전제) → 이 소가 내 할머니일 가능성은 없어(전제)

→ 그러므로 소고기를 먹는 것은 나쁘지는 않아(결론)

"소가 할머니일 가능성이 있는지"만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요?

모든 도덕률이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고, 같은 도덕률이 서로 다른 문화에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뿐이다.

→ 앞서 살펴 본 예에서, '할머니를 먹는 것은 나빠'라는 도덕률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도덕률이 서로 다른 문화에서 서로 다른 방식(소를 먹는 것은 나빠 vs 나쁘지 않아)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 점(=모든 도덕률이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다)은 문화 상대주의에서도 받아들이는 주장이다.

→ 그렇습니다. 이 문단 처음에서 문화 상대주의 언급이 있었는데,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보가 제시되지는 않았습시다만, 우리는 이 문단을 통해 도덕 상대주의("옳고 그름은 관점의 문제일 뿐이며, 그러한 관점은 문화마다 다르다")가 문화 상대주의의 특정한 부분(즉, 소를 먹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할 수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을 오해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화 상대주의에서는 "소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여기겠으나, "할머니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문화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질 순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반면 도덕 상대주의에서는 앞뒤 짜르고 문화마다 옳고 그름이란 것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했음을 읽어 낼 수 있었으면 다 이해 한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